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더위가 좋아"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1일 한강에서 웨이크보드 전 아시아 쥬니어챔피언 고하리 선수가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동원 선덜랜드 간다

전남, 이적료 38억원에 동의

20세 최연소 프리미어리거

축구 대표팀의 차세대 간판 공격수 지동원(20·전남)의 최종 종착지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로 결정됐다.

유종호 전남 사장은 21일 "지동원을 영입하겠다는 선덜랜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선덜랜드는 지동원의 이적료로 350만 달러(약 38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은 "20일 저녁 선덜랜드로부터 최종 제안을 받았고 이적료는 이청용의 볼턴 입단 당시 받았던 수준과 비슷하다"며 "구단에서도 그 정도 선이면 보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봉이나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야 해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현지와의 시차를 고려하면 내일 중으로 답변을 보내고 최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동원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현재는 알 힐랄 소속), 설기현(풀럼), 이동국(미들즈브러·현재는 전북 소속), 김두현(웨스트브롬), 조원희(위건), 이청용(볼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여덟 번째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게 됐다.

지동원은 2009년 볼턴 입단 당시 21세였던 이청용보다 한 살 어린 20세로 영국 무대를 밟아 최연소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막판까지 선덜랜드와 네덜란드 명문 클럽 PSV에인트호벤을 놓고 고민하던 지동원은 애초 이적료가 100만~130만 달러(약 10억~14억원) 수준에서 거론되면서 불거진 '헐값 진출' 논란도 말끔하게 씻어내고 유럽 프로축구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됐다.

A매치 출장 경험이 10경기인 지동원은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올림픽 대표팀의 일원으로 23일 열리는 요르단과의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있는 지동원은 귀국 후 26일 예정된 강원과의 정규리그 홈 경기로 고별전을 치를 계획이다.

이후 지동원은 7월 초 독일에서 시작하는 선덜랜드의 전지훈련 캠프에 참가해 헤르타 베를린, 뮌헨(이상 독일) 등과 시즌 개막 전에 시범경기를 치르면서 가능성을 테스트받을 예정이다.

축구대표팀 사령탑 조광래 감독은 지동원의 선덜랜드 이적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 감독은 "최근에는 잉글랜드 축구도 기술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지동원이 적응하기 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축구팀 "등번호 꼭꼭 숨겨라"

3차 예선 대비 전력노출 막기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지동원(전남)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 홈 경기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었다.

또 미드필더 김태환(서울)은 16번, 중원사령관 윤빛가람(경남)은 8번, 주장인 중앙수비수 김영권(제주)은 5번이 붙은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23일 자정(한국시간) 요르단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태극전사들이 달게 될 등번호는 베일에 싸여 있다.

대표팀은 이번 요르단 원정길에 오를 때 같은 등번호의 유니폼을 사이즈별로 여러 장 준비했다. 이는 2차 예선을 통과하는 12개국이 3개조로 나뉘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는 3차 풀리그 예선에 대비한 포석이다.

조심스럽게 3차 최종 예선 진출을 내다보는 홍명보 감독은 3차 예선에서 맞붙을 팀이 우리팀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막판까지 등번호 비공개를 결정했다.

등번호는 경기 시작 90분 전에 18명의 참가선수 명단을 제출할 때 적어내면 된다. 또 올림픽 예선 1·2차전에 출전하는 선수의 등번호가 달라도 문제가 없다. /연합뉴스

메이저퀸 신지애 "이번엔 우승"

웨그먼스챔피언십 출전 위성미 등도 첫승 노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가 시작된다.

LPGA가 주최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웨그먼스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 힐 골프장(파72·6506야드)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2009년까지 외식업체 맥도널드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지만, 지난해부터 유통업체 웨그먼스가 후원하고 있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스테이시 루이스가 깜짝 우승했지만, 웨그먼스 챔피언십 우승컵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대만의 청야니가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제패하고 올해도 2승을 거뒀지만, 한국여자골프군단의 기세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올 시즌 LPGA 투어 무대에서 재미교포 위성미(22·나이키골프)와 김송희(23·하이트)가 한 차례, 신지애(23·미래에셋)가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국 선수들의 기세가 무섭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군단의 '원투펀치' 신지애와 최나연(24·SK텔레콤), 위성미, 김인경(23·하나금융), 김송희 등이 출전해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웨그먼스 챔피언십에서는 박세리(34)가 1998년, 2002년, 2006년 우승했고, 김송희가 지난해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나달 "1회전 쯤이야"

윔블던 단식 3-0 승리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사진)이 윔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1460만 파운드) 남자 단식 1회전을 가볍게 통과했다.

나달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마이클 러셀(90위·미국)을 3-0(6-4 6-2 6-2)로 완파하고 2회전(64강)에 올랐다.

2008년과 지난해 윔블던 정상에 올랐던 나달은 2009년에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하는 바람에 올해 처음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센터코트에서 1회전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코트를 처음 밟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달 초 끝난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상승세를 몰아 2개 메이저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나달의 다음 상대는 또 다른 미국 선수인 라이언 스위팅(59위)이다.

여자 단식에서는 랭킹 2위 베라 즈보나레바(러시아)가 앨리슨 리스크(115위·미국)를 2-1(6-0 3-6 6-3)로 돌려세우고 2회전에 진출했다. 올해 프랑스오픈 준우승자 프란체스카 스키아보네(7위·이탈리아)는 '컴백 퀸' 엘레나 도키치(45위·호주)를 역시 2-1(6-4 1-6 6-3)로 꺾었다.

광주FC 수문장 박호진

K리그 14R 베스트 11

광주 FC의 수문장 박호진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일 K리그 1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18일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안정적인 볼 핸들링으로 효과적인 수비를 펼치며 무실점을 기록한 광주 박호진은 골키퍼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해트트릭으로 수원의 4-1 승리를 이끈 염기훈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베스트팀의 영예는 전북에게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